



② 선(禪)과 알음알이

참선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책을 읽지 말라' '경전을 보지 말라' 또는 '아는 것이 많으면 깨달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선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책을 읽지 말라' '경전을 보지 말라' 또는 '아는 것이 많으면 깨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책이나 경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경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신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경전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적?

등은 모두 깨달음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알음알이를 생산하는 지식공장이나 정신집중을 분산시키는 존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선의 입장은 수행에 있어 지식·학문적 접근 경계 지식 바탕으로 실제적 탐구 통해 깨달음 체득해야

요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책이나 경전, 학문, 지식 등은 모두 지노나 이교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행자로서 경전이나 책을 도외시하면 첫째는 무지(無智)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책이나 경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경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를 따르지 않은 결과로서, 이것은 선에 대한 지식적 바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의 입장은 수행에 있어 지식·학문적 접근 경계 지식 바탕으로 실제적 탐구 통해 깨달음 체득해야

그러므로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이나 화두 참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서 열심히 화두를 참구할 적에는 경전이나 책을 볼 필요가 없지만 가타 시간에는 선에 대한 경전이나 훌륭한 선어록을 참고하여 안목을 넓히면 더 빨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이나 화두 참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조 국사나 나옹, 서산, 경허, 한암 선사 같은 분들도 많은 책을 썼는데 경전과 병(癡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이것이 깨닫게 되는 징조인 줄 착각하여 '나 예전 왜 그런 것이 없나'하고 고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선원에서는 참선과 간경(看經, 경전 강의)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선원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의 해석에 빠져서 실제적인 수행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팔정도 닦아 '윤회의 굴레' 벗다

② 아라한이 된 최초의 비구니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세존이시여, '여성도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힘써 수행하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세존께서 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나야, 여래는 그렇게 설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어찌하여 고타미 부인의 출가를 승낙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승들이 출가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석가족 부인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굳건하다면, 어찌 출가를 승낙하지 아니하라?"

곧 고타미와 많은 석가족 여인들이 들어와 세존의 발에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알구나, 비구니들이여."

아소다라 부인과 함께 출가하였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비구니는 머지않아 아라한이 되었다.

이제는 '장로니계'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모든 괴로움 널리 살펴 보고, 괴로움의 원인인 망집(妄執)을 떨쳐내고, 여덟 가지 바른 길(正道)을 실천하여, 망집의 소멸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몸입니다."

<대에도비구니경>과 <비구니경도> 등에 따르면,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養母)인 고타미 왕후는 최초의 비구니로서 아라한이 된 분이다.

팔정도는 대·소승의 모든 수행의 원리를 담고 있기에, 간혹선과 염불, 위빠사나 등 그 어떤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이든, 그러나 이것을 일상 속의 수행방편으로 여겨서 그대로 정진하는 불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팔정도를 단순한 교리만 이해하고, 거기에 숨은 귀중한 수행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4성제(聖諦) 중 도성제(道聖諦)에 해당한다.

팔정도는 양 극단(쾌락·고행)을 버리고 여덟 가지 중도(中道)수행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이제 법(法)의 바탕위에서 정(定)이 성립되고 그 다음 혜(慧)가 완성되는 계층해탈의 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어떤 것이 '바른 마음챙김(正念)'인가. 진리를 수순(隨順)하는 생각이니 헛되고 망령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망집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전심전력으로 알아차려서 분명한 양으로 계속 관할한다.

이와 같이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일체를 분별심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바탕으로 계율, 선정, 지혜를 닦는 중도수행이 팔정도이다.

신행게시판

●조계사 일요기회법회-서울 조계사 1월 13일부터 시작한 일요기회법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 문화대학 47주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남이) 2008년 문화대학 47주평창을 모집한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기 불교영어 기초과정-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기 불교영어 기초과정(The 2th Buddhist-English Basic Course Open)을 개설했다.

●유지장사 입촌 21일 기도-양주 유지장사 입촌(入叢)을 맞아 21일 동안 기도를 병행한다.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 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